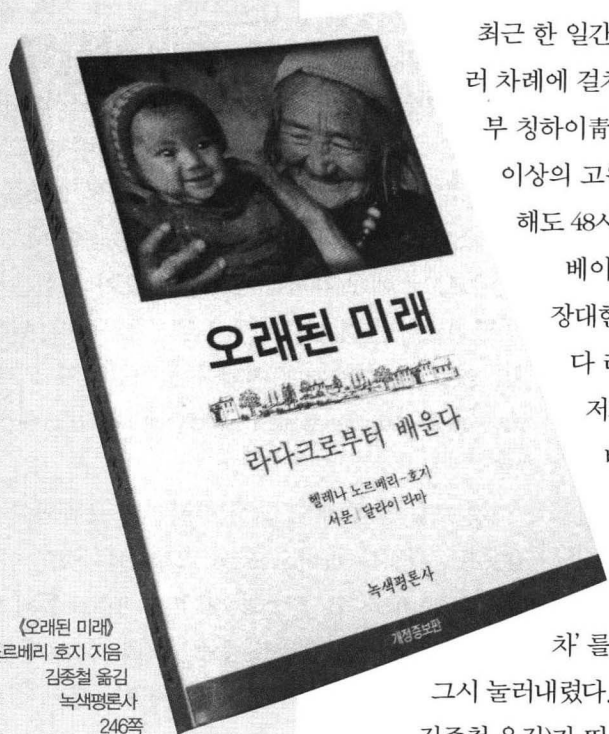


# ‘하늘 열차’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는 대신 라다크에 희망을 거는 이유

《오래된 미래》

글\_임동헌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246쪽  
값 8,000원

최근 한 일간지는 내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하늘 열차’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하늘열차’는 지난 7월 1일 개통된, 중국 서부 칭하이青海 성과 티베트의 시짱西藏 자치구 간의 해발 4000 미터 이상의 고원 지대를 달리는 기차를 말한다. 이 열차는 주행 시간만 해도 48시간, 이틀 내내 달린다.

베이징에서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까지 4064km에 이르는 이 장대한 기차 이야기는 그러나 내게 강석경의 소설 〈모든 별은 다 라사에 뜬다〉를 떠올리게 했다. 한동안 인도에 머물렀던 저자가 이 소설 제목에 ‘별’과 ‘라사’를 등장시킨 것은 티베트의 라사가 모든 인간들의 정신적 고향과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고, 라사에서 올려다보는 ‘별’이야말로 가장 ‘순결한 별’이라는 작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라사에 기차가 달리고, 벌써 관광객이 밀어닥쳐 ‘하늘열차’를 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뉴스는 내 여행 욕구를 지그시 눌러내렸다. 거기서 다시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음, 김종철 옮김)가 떠올랐다.

《오래된 미래》는 스웨덴 출신 여성학자인 저자가 티베트의 농촌 공동체 마을인 라다크에서 16년 동안 머물며 고원 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도회지 사람들과 달리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삶의 여유까지 즐기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다. 동시에 이 책의 뒤쪽으로 가면 ‘라다크’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파괴되어 갔고, 그런 파괴로부터 라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를 모색한 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오래된 미래》는 환경 운동, 녹색 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서 목록으로 호명돼 온 지 오래인데, 필자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5년 발행된 ‘개정정보판 18쇄’ 중의 한 권이다. 이쯤 되면 책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의 ‘효자’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무엇이 이 책의 스테디한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는가. 바로, ‘하늘 열차’ 같은 존재들이다. 문명의 이기가 세계 구석구석을 침투해 갈수록 《오래된 미래》의 덕목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책은 여전히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도서 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그 경로는 간단하다. 예컨대, 느낌의 대척점은 빠름에 있다. 그리고 빠름

##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이야기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은 요즘 사람들이 가늠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 목록에 편입돼 있다. 더 빠르게, 더 얇게, 그래서 두께 1센티미터가 안 되는 휴대폰이 출시되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Wireless Broadband의 약자) 기술을 토대로 인텔, 모토로라, 스프린트 등의 세계적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선언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더 개벽할 것인가는 너무 뻔한 일이 돼버렸다. 그것이 마치 최선의 선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마우스 권 손에 힘을 주면서 짜증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미래》는 느낌의 세계를 얘기한다. 느낌에 어떤 덕목이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 세계가 파괴될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역설한다. 도입부를 보자. 티베트의 고원 지대 황무지 라다크(저자는 라다크를 ‘고갯길이 있는 땅’, 즉 티베트의 라다그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형편무인지경인 곳이다. 고도가 3천 미터를 넘고,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녀 달 남짓에 불과하다. 설악산과 한라산보다 높은 지형의 이런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라곤 보리와 밀 정도인데, 라다크 사람들은 이들 곡식으로 자신들의 식량을 대부분 자급자족한다. 물론 양 염소 당나귀 말 소 등을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노동력을 빌리고, 털과 젖을 얻는 부가가치가 있기는 해도 이것 역시 여전한 아날로그의 세계, 자연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세계이다. ‘무동력의 세계’인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자는 라다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울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 저자를 지켜보던 여섯 살짜리 소녀가 다가와 경고했다. ‘그 물에 옷을 넣으면 안 돼요. 저 아래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소녀가 말하는 ‘저 아래쪽’은 개울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였다. 소녀는 다시 저자에게 말을 건넸다. ‘저쪽에 있는 물을 쓰면 돼요. 저것은 그냥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미래》의 저자가 라다크 소녀로부터 배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의 지혜’였다. 이런 때, ‘옛 지혜=아름다운 생존 방식’이란 동식이 성립한다.

와이브로의 세상에 우리는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 사람들을 통해 삶의 질이 문명의 혜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사실, 그들의 삶은 누추하다. 녀 달 남짓 농사를 짓지만 농기구라야 베틀, 쟁기, 삽, 톱, 낫, 망치 같은 것이 전부이다. 그런 농기구들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는

가. 그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아서 ‘땅이 푸른 동안은 이야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녀 달 동안은 오직 농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녀 달이 지나면 라다크 사람들은 추수 때 벌이는 축제를 필두로 시간을 즐기는 삶으로 들어간다. 그래서일까, 라다크 사람들은 불균형한 영양을 섭취하는데도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뚱뚱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마른 사람도 없다. 저자의 진단은 명쾌하다.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시니 과학적인 식습관의 매뉴얼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속도로 일하고, 놀라울 만큼 많은 여가를 누리는 것’이 넓은 집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열차’가 베이징에서 라사까지 달리는 세상이 되고 보니 라다크도 무사하지는 않다. 라다크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공동체는 와해되고, 사람들은 분열한다. 1974년까지만 해도 관광객을 거의 볼 수 없었으나 1984년에는 무려 1만5천 명이 밀어닥쳤다. 라다크 사람들은 선글래스, 카세트 플레이어, 청바지, 오토바이를 사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갔고,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는 고향마을 사람들을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불교를 믿는 사람과 모슬렘교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오래된 미래》가 라다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허물어지는가를 얘기하는 데 그쳤다면 이 책은 그리 많이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3부에 들어서면 저자를 비롯한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대안을 모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것이 ‘라다크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의 하나가 300일 이상 햇볕을 받는 라다크의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 태양열을 모았다 사용하는 ‘트롱브 벽’이다. 진흙벽돌 벽에 유리를 붙여 태양열을 흡수하도록 한 뒤 재사용한 것인데, 이 방식은 라다크의 전통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운동이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적 조직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이고, 그 여파로 스웨덴에는 생태마을 조성 붐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오래된 미래》는 그런 점에서 ‘하늘 열차’를 타고 티베트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휘방하는 책일 수 있다. 그러나 진보의 한 측면에는 아날로그 세계를 보존하는 세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라사는 벌써 쓰레기 더미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나는 ‘하늘 열차’에 대한 욕망을 버렸다. ❧